

## 遼代 古墳壁畫상의 舞樂人 服飾에 관한 研究

임 명 미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A Study on the Dancer and Musician Costumes by the Murals in Tombs of Liao Dynasty

Myung-Mi Im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2. 12. 24 투고)

#### ABSTRACT

The results from the consideration of this are as follows.

A Study on the Dancer and Musician Costumes by the Murals in Tombs decorate with mural, which is of Liao Dynasty. The tombs belong to two families : eight of them located to the northeast of Xiabali Village belong to the Zhang Family. Another was located to the north of Xiabali Village belong to the Han Family. The bands of the "Sanyue" consist of five to twelve players wearing luxurious dresses(Jamhwasik hwagakBokdu, Danryung, Belt, Boots) and playing miscellaneous musical instruments: sometimes the female ones in the bands are disguised as male. Usually, each band is accompanied with one or a couple of dancers, which one wearing is luxurious dresses(Goge, Jamhwasik, Yoo : Jacket : joegori, Sang : skirts : chima, and shoes).

Key words : Dancer and Musician Costumes(舞樂人 服飾),  
Murals in Tombs, Liao Dynasty(遼代 壁畫墓),  
luxurious dresses(JamhwasikhwagakBokdu : 簪花飾 花脚幘頭),  
Danryung(團領), Belt(帶), Boots(靴), luxurious dresses(Goge : 高髻),  
Jamhwasik, Yoo(襦): Jacket : joegori, Sang(裳) : skirts : chima, and shoes.

## I. 연구목표

우리나라 고대복식문화는 중국복식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상호영향 끼치며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별 복식특성에 관한 고찰은 역사발전에 따라서 부침을 계속한 인접국인 중국의 왕조별 복식과의 관계속에서 고찰되어야 내용이 풍부하고 사실에 근접해지며, 舞樂人 복식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본 연구는 고려시대 복식을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에 고려중기 遼의 쇠퇴소식을 듣고, 睿宗은 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禮制를 新定할 즈음, 왕 12년, '글안'에서 歌舞와 雜戲가 전해지고<sup>1)</sup>, 민간무악의 演戲내용에는 글안, 여진, 몽고 등의 胡樂, 胡戲 까지 끼어들어 내용이 다양하였으며<sup>2)</sup> 등, 글안의 舞樂이 고려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고려시대 舞樂人의 服飾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는 글안의 무악복식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는데, 착안하고 중국의 왕조별 무악인 복식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민족 征服 왕조인 遼나라 舞樂人 복식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 II.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遼의 존속 200여년 동안에 국한하여 존속당시의 통치 史料와 취득 가능한 범위내에서 傳世繪圖, 遼代造成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古墳壁畫중 舞樂人이 그려진 고분벽화, 관계연구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완성한다. 고려시대 民間舞樂중에 글안 舞樂의인 요소를 고찰하는 문제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 III. 본론

### 1. 高麗史料상의 글안.遼와의 관계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동아세아에서 '글안'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sup>3)</sup>. 遼나라는 북부초원지대의 유목민과 燕雲지역의 농경위주로 살아가는 漢族, 발해유민이 주 구성원이 되어 이복한 나라로 태조 야율아보기와 태종 야율덕광은 數 십여년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여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과 내몽고이하 하북지역, 산서성 북부지역을 점령하여 북방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고려(918-1392)와 요(916-1125)는 고려태조 천수 1년부터 인종 3(1125)년, 요의 保大 5년(918-1115)까지 207년간 교류하였다. 성종 12년(993) 글안은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 성종 13년 글안의 성종 統和연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15년 부터는 글안의 책봉을 받기 시작하였다.<sup>4)</sup> 고려 성종 15년(996)부터 예종 3(1108)년 까지 113년 간 긴 세월동안 총 22회에 걸쳐서 왕과 태자를 책봉하고 禮服을 사여하였으며, 총 22회 冊封禮중 元子和 太子 책봉이 7회, 國王 책봉이 15회 었었다.<sup>5)</sup> 성종대부터 쓰기 시작한 글안의 연호는 통화(983-1011)와 開泰(1012-1021)의 연호를 21년간 사용하였으며, 다시 太平 2년부터 17년간, 重熙(1032-1054)의 연호 22년, 淸寧(1055-1064)은 10년, 咸甕(1065-1074)은 10년, 太康(1075-1084) 10년, 大安(1085-1094)10년, 壽昌(1095-1100)은 6년, 乾統(1101-1110) 10년, 天慶(1111-1120)은 10년, 총괄하여 100년간 글안.요의 연호를 쓰고 매년 사신의 내왕이 있었다.<sup>6)</sup>

兩國使臣이 연례 행사로 왕래 뿐 아니라 渤海 패망후 渤海의 古地를 접수한후, 고려와 글안은 국경이 인접하였고, 양국간의 전쟁이나 정치변동에 따라서 글안족의 고려로의 유입사항을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顯宗一代에는 글안과 2회에 걸친 큰 싸움이 있어서 쌍방간에 포로가 매우 많았고, 1018년 전쟁 이후 많은 글안인이 고려에 투항해 왔다. 특히 글안인 來投者는 1010년을 전후하여 속출하였다.<sup>7)</sup> 고려사를 정리하여 보면, 요와 교류당시 현종 연간에 가장 많이 글안족이 투항을 해왔는데, 현종 7년에는 43가구와 그 식솔 및 100여인에 가까운 83인이 투항을 해왔다. 8년에는 37가구와 그 식솔 및 22인, 9년에는 16인이 투항, 10년에는 강감찬 장군

이 글안과의 전쟁에 이김으로서 수천인의 글안인을 생포해와 노예화 시켰으며, 현종 13년에는 34인, 14년에는 24가구와 그 식솔 및 8인이 투항을 해왔다. 현종대 글안인은 고려사 기록으로 보면, 총 104가구와 그에 따른 식솔과 164인이 공식적으로 투항을 해왔고 수천인이 포로로 잡혀왔었다. 이에 대해 김위현은 총 613인이 내투(來投) 해온것으로 집계하고 있다.<sup>8)</sup>

2) 덕종 년간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96인이 투항을 해왔고, 총괄하면, 107인이 내투하였다.<sup>9)</sup>

3) 청종연간에는 20여호와 총130인이 투항을 해왔다. <sup>10)</sup>

4) 문종 연간에는 21인이 내투 해왔다.<sup>11)</sup>

5) 숙종 연간에 1인.<sup>12)</sup>

6) 예종 연간에는 274인, 예종12년, 요가 패망하자 수만명의 글안 유민이 투항해온 것을 끝으로 글안 유민의 고려투항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南京(지금의 서울) 부근에 산재하여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부분 製器, 製服 등의 업종에 종사하였다.<sup>13)</sup>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사항으로 '고려도경'에 보면, 冶金 工藝技術者들의 투항을 받아드려서 王府에 머물게 하고 그릇이나 옷 등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sup>14)</sup>, 來投 글안인들은 工技條. 儀衛軍에도 속하여 領軍郎將 騎兵에 고려병사들과 다른 복장을 하고 있는 글안의 降卒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sup>15)</sup>

이상에서 본것과 같이 고려와 글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人的 교류가 200여 년간 계속되는 중에 상호 영향끼치고 문화적인 移入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 2. 遼代 繪畫 및 壁畫墓 散樂圖에 나타난 舞樂人 服飾.

遼代의 벽화묘는 2종류로 나눌수가 있다. 하나는 글안 귀족계층의 陵墓이고, 다른 하나는 漢族관리나 地主의 陵墓이다. 벽화묘는 원형, 방형 8각형으로 結構되어 있으며, 묘실 앞에는 긴 墓道가 있고, 천정과 통도로 구성되어 있다. 벽화는 묘실과

묘도의 벽에 그려져 있다.

초기의 글안 귀족묘에는 石棺이나 木棺의 내벽에 채색화가 그려졌다. 그러나 政權 건립후 唐制를 모방하여 묘실을 건축하고 厚葬 풍습이 유행하여 묘실의 규모가 커지고 부장유물의 양이나 내용이 풍부하여 졌다. 이런 묘실들은 遼의 上京. 中京지역인 내몽고 동부와 요녕성 서북부에 위치하였다. 벽화묘의 벽화주제는 유목생활, 사계절의 풍광, 宴飲.散樂圖와 出行과 歸來圖와 花鳥圖, 星宿圖 등으로 나누어졌다. 이중 연음 산악도는 宋과의 '澶淵之盟'이후 遼國內 생산이 발전되고 遼의 귀족이나 皇族들은 매년 宋으로 부터 거액의 歲幣를 받게 됨에 따라 생활이 호화 사치스러워져 擊毬 · 狩獵, 宴飲 · 散樂을 일상으로 즐기면서 이러한 생활관습을 死後에 墓室의 그림으로 벽화에 나타낸 것이다.<sup>16)</sup>

遼의 技藝戲劇 활동은 개국초부터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後晋을 멸하고 後晋의 舞樂雜戲를 받아들여 이것이 遼國의 散樂의 기초를 이룬 것이다.<sup>17)18)</sup>

遼史에 보면, 황제나 황후의 생신 등이나, 宋, 高麗, 回鶻 등의 사신을 위한 연회를 베풀 때, '酒一行,.. 筵築起.....歌...酒二行...歌...手伎人....酒三行...琵琶獨彈...'라 되어 있어서 이를 짐작할수 있고, 수렵 · 격구 놀이후 연음자리에는 遼의 臣僚들을 위한 散樂을 연주하였으며, 使臣接待 궁중 연음시에는 사신이나 신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술을 들고 축하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唐代의 祝酒풍습의 存有현상이며, 遼代 雅樂舞의 설치 역시 唐의 舊制를 모방하였다. 또한 궁정의 연회 전례시에는 宋代 이래의 雜劇도 항목에 포함되었다.<sup>19)</sup> 이외에 요대에는 글안족 고유의 巫舞도 비교적 성행하고 허다한 의식중에 포함되었는데, 즉, 祭山儀, 瑟瑟儀같은 祈雨祭에서 행하여졌다.

한편, 遼史 樂誌에 보면, '遼有國樂, 有雅樂, 有大樂, 有散樂'이라 하여 遼에는 4부악이 있는데, 國樂-글안족 전통 무악이며, 雅樂-西周이래의 궁중용 樂舞規格이고, 大樂-당.송의 歌舞를 말하는 것으로 遼의 태종이 後晋의 서울인 開封을 점령한후,

後晉의 궁녀, 환관, 方技, 百工, 太常 및 樂譜, 石經 등을 접수하여, 遼의 궁중악에 漢族舞樂을 편입하여 大樂을 만든 뒤 景雲樂舞, 慶雲樂舞, 破陣樂舞, 承天樂舞 등이 궁정의 禮衛宴樂에서 연주되었다.<sup>20)</sup> 散樂-民間雜技를 총 집합 한 것이다. 아악, 대악, 산악, 3部樂은 글안의 태종 야율덕광이 後晉을 멸한 후 취득한 것이다.<sup>21)</sup> 古墳壁畫의 散樂圖들은 遼代 樂部의 大曲, 즉, 음악, 무용, 詩歌가 결합된 歌舞曲인데 여러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2)</sup> 요대의 散樂器로는 피리, 숙, 직, 생, 비파, 오현, 공후, 쟁, 方响, 장고, 第二鼓, 第三鼓, 腰鼓, 大鼓, 鞞, 박판 등이 있었다.<sup>23)</sup>

古墳壁畫墓中 散樂圖 壁畫는 五代 後晉의 舞樂과 宋의 大曲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대곡 연출 장면이 잘 표현 되어있다. 이는 종교적으로 산악이 유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sup>24)</sup> 요대의 舞樂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하북 선화출토 요묘벽화의 '산악도'와 북경 방산 운거사의 탑과 石幢위의 樂舞人形象, 등이 있고, 이들 자료를 통해서 요대 무악인의 복식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sup>25)</sup>

陵墓의 벽화에 표현된 인물들은 글안인 裝束을 하거나 漢人 裝束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벽화에 漢族 복장을 한 舞樂人들은 포로로 잡혀온 漢族 무악인들 일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sup>26)</sup>, 북방 이민족인 글안족이 정복 정권수립후 점령지 거주 漢人들로서, 벽화 출연 인물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통치지역 한인 거주민들과 정복자 글안인들이 더불어 사는 중에 문화와 풍습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여 만들어낸 지방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한다<sup>27)</sup>. 그런가하면, 요대 후기에 이르러서 글안인과 한인이 통혼하여 서로 혈연적으로 융합되므로서 글안족의 髡髮아동과 쌍계를 한 漢族 아동이 공존하게 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28)</sup> 그런가 하면, 이와는 다른 견해로 송사 여복지에 '北宋의 京城 居室에서 입는 옷으로, 부녀자들이 글안복을 입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알수가 있는 것과 같이, 遼末 漢族들의 글안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12세기 글안 통치하의 한인들의 생활양상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와같은 현상은 宋代의 雜劇인 丁都幕 塑刻 裝束<sup>29)</sup>을 예를 들어 宋의 배우가 글안의 裝束을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sup>30)</sup>

多數의 散樂圖가 그려진 張氏 一族墓의 산악도에 등장하는 舞樂人들의 신분에 대하여, 장씨 일가의 私的인 伎樂부대이거나, 혹은 당시 宋의 半官 신분의 '衛前樂'에 복무하던 민간인 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sup>31)</sup>

樂器 演奏人들의 복식은 대개 簪花 삼식, 花脚幘頭를 쓰고 袍服을 입고 화려하다. 각개의 산악조에는 1-2인의 무용인이 속해있다. 무용인들은 남자의 경우, 簪花幘頭를 쓰고 袍服을 입고 있으나, 여자 舞踊人의 경우, 글안인 여자 장속이거나 당시의 동아시아 여자 장속의 특성을 지닌 여자의 복장을 하고 있다. 이상의 글안, 遼代의 樂舞에 관한 기초적인 배경 위에서 傳世繪圖나 고분벽화상의 散樂圖를 중심으로 무악인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몽고 소오달맹 檄漢旗 北 3家 遼墓

1978-1979년 사이 북 3가촌 격한기 문화관은 3좌의 요묘를 발굴정리 하였는데, 3좌의 묘중, 1.3호 묘 벽화인물에 관한 자료만 정리 보고되어 있다.

##### (1) 제 1호묘

墓의 천정 남북의 서측에 2인의 漢人 樂人이 그려져 있고 동측 1인은 머리에 展脚복두, 담남색포, 홍색단령포, 황색대, 흑화를 착용하고 숙을 연주하고 있다. 서측의 1인은 卷脚복두, 천남색단령포, 백색내의, 황색대, 흑화를 착용하고 鼓를 연주하고 있다. 포는 허리아래 양옆에 트임이 있다. 남동벽측 1인은 록포에 흑화를 착용하고 있다. 묘도 양벽의 벽화에는 1인이 卷脚복두, 담록색 단령포, 躡白靴를 착용하고 長鼓를 연주하



<도 1> 내몽고 소오달맹 檄漢旗 北 3家 遼墓. 제 1호묘 벽화 무악인, 문물출판사 (1989), 중국미술전집, 회화편, 12, 묘실벽화, p. 155.

고 있다.<sup>32)</sup> <도 1>

(2) 제 3호묘

1호묘에서 0.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0인의 인물화가 그려져 있고 통도 양벽에 奏樂圖가 있다. 동측벽에는 5인이 그려져 있고 장포에 흑화를 착용 하였다. 서측 벽 5인은 복두, 황색포, 홍색내의, 흑화를 착용하고 있다.<sup>33)34)</sup> <제3호 묘의 무악인 그림은 생략되고, 무악장면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 翁牛特旗 解放營子墓

묘의 木槨위에는 8인의 漢服을 착용한 인물들이 배열하여 주악을 연주하며 연음장면의 흥을 북돋우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웅우특기 해방 영자묘의 무악인 그림은 생략되고, 무악인들이 한족의 옷을 입고 연주하고 있다는 장면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 哲里木盟 庫倫旗 6호 遼墓

1980년에 발굴하였으며, 높이 90, 너비 160센티미터에 묘문 門額에 5명의 성장한 여자 무악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도 2>는 그중 3인의 모습인데, 우측 1인은 비파를 연주하고, 그 옆에는 피리를 불고있는 모습이며,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약간 얼굴을 숙이고 있다.<sup>35)</sup> 벽화의 무악인 여자들의 복식은 漢族裝束으로 올린 머리는 홍대로 묶어 뒤에 길게 느리고, 雙으로 扇骨髻를 하고,



<도 2> 哲里木盟 庫倫旗 6호 遼墓벽화 무악인, 文物 출판사 (1989), 중국미술전집, 회화편, 12, 묘실벽화, p. 163.

6개의 簪花를 각각 插飾하고, 앞이마 양옆에 寶珠飾을 1개씩 하고 耳飾을 하였다. 上衣(襦) 깃에는 모두 당시의 유행이었던 ‘雲肩’을 깃에 끼워 박아 장식하고, 가운데 피리부는 여성은 소매에 如意褶 장식(주름장식)이 된 저고리를 입었고, 3자 모두 무릎길이의 ‘長襦’에 下衣로는 치마단에 주름장식이 되어있기도 한 치마를 입고, 저고리 위로 蔽膝을 두르고, 結帶하여 앞중심에 길게 내려 느렸다. 바람에 휘날리는 領巾을 걸치고 있다.

4) 宣化 下 8리 壁畫墓

선화 지역 遼墓 벽화는 1971-1998년까지 14좌의 요묘를 발굴하였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9좌묘중 현재 7좌의 雙室墓중 전실에서 기악도(혹은 散樂圖)가 발견되었다. 그 분포는 대개 遼國의 南部에 위치하는데 遼代 南京, 西京, 東京지역에 가장 많다. 대안년간에 만들어진 장국정, 장문조 및 6호, 9호묘 등 4좌묘는 산악도가 전실 서벽에 그려져 있었고, 천웅년간에 만들어진 한사훈묘 장세경, 장세고 묘 등은 전실 동벽에 그려져 있었다. 악대인원의 수는 묘주의 신분과 관계가 있는데 많게는 12인 적게는 5인이다. 장국정 묘는 장씨 가족묘중 가장 오래된 묘인데, 산악도는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산악도는 묘의 전실 양벽에 가장 많이 그려져 있다. 그중 1호묘에 등장하는 산악인의 인원수가 가장 많은데 12人, 5호묘는 5인이 등장한다.

매폭마다 舞蹈(舞踊人)者는 1-2인이 등장하는데, 무용인은 腰鼓연주를 겸하고 있기도 하다. 악기는 피리, 횡적, 숙, 비숙, 생, 비파, 박판, 요고, 대고 등을 연주하고 있다. 산악인의 배열은 연주나 무도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6)</sup>

선화 하 8리의 묘군은 2.3호의 單室 墓를 제외하고는 모두 雙室墓로 조성되어 있으며, 漢族인 張氏一家墓와 한사훈 墓로 나눌수 있다.<sup>37)</sup> 요대 후기의 장씨일가와 한씨의 가족묘지는 대안년간(1085-1094)과 천경년간(1111-1120)에 조성된 묘군이다.<sup>38)</sup> 3.6.7.9.10호 墓 등 5좌의 張氏 가족묘중 M 1.6.7.10호 4좌의 쌍실묘 前室 西壁에 산악도가 그려져 있다. 4호묘인 한사훈묘는 前室 東壁에 산악도가 그려져 있다. 매폭의 산악도에는 모두 舞踊

人, 歌樂人, 器樂人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요대의 大曲을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벽화 중, 산악도가 묘사된 것은 당시 이 지역의 민간인들 사이에도 散樂이 크게 유행하였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39)</sup> 산악도 구성 인물들은 장세경묘와 M1호묘, M5호묘 벽화중의 주악인은 수염을 단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天慶년간에 조선된 M6호묘, M7호묘, M10호묘의 奏樂人과 舞蹈者는 모두 젊은 여성들로서 舞蹈者를 제외한 주악인들은 男裝 여자들이다. 이는 당시 송의 北宋元符 2년(1099) 월대용묘의 전실동벽 산악도에도 11명의 여악 중 5명이 남장을 하고 복두.團領袍服을 착용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sup>40)</sup>

墓葬은 주로 遼의 道宗 大安 9年(1093)年 부터 天祚帝 天慶 7年(1117)까지 시간 거리상으로 보면 23-4年 시간 사이에 만들어진 陵墓 群이다.<sup>41)42)</sup>

이들 장씨 一家의 가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43)</sup>

- 
- 형 장국정--|-장문기  
 |-장문진 -|장세경-장공겸  
 |-장문조 -|장세고  
           |장세본-장공성  
                   -장공보

동생-장국소  
 동생-장국윤

-----

서북쪽에 조성된 장세경묘(M1호)를 중심으로 장세고(M5), 장공두(M2)묘, 3인의 장례年代는 차이가 1년이다. 장세경은 천응 6年, 장세고, 장공수父子는 동년, 동월, 동일에 下葬을 하였다. 이들 장씨 일가 묘장 중 장세경의 묘가 가장 크고 높다.

전장 방후 방형이고, 장세고의 묘는 전방 후 6각형묘이다. 장공수 묘는 6각형 단실묘이다.<sup>44)</sup> 3인의 묘에 묘주의 生前 생활을 반영하는 乘馬 혹은 下車 出行圖, 男裝女의 散樂圖 등이 그려져 있다. 이들

일가중 최고로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은 장세경으로 직위는 右班殿職, 검교국자 제주검 감찰어사 직위를 지냈다.

동남쪽에 동시기에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3좌의 묘(M10, M7, M3)를 보면, 墓의 墓門, 前室, 後室로 구성되어 있다. 벽화의 내용은 전실의 동.서 양벽에 나누어 男裝女樂의 산악도가 그려져 있다. 산악도가 그려진 묘를 중심으로 1묘씩의 무악인 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M 1호 장세경묘

M 1호 묘의 張世卿은 遼 天康 6年(1116)年, 동년에 묘장 하였다.<sup>45)</sup> 장세경은 장씨 일가중에서 생존당시 최고로 관직이 높았던 사람으로 右班殿直검교 국가 제주검 감찰어사 직위를 가졌었다.<sup>46)</sup> 산악도는 전실 동벽에 그려져 있으며 악대는 12인으로 구성되었다. 전, 후 2줄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 전열 좌측 1번째 인물은 피리를 불고 있고, 2번째 인물은 笙, 3번째 인물은 숙, 4번째 인물은 요고, 5번째 인물은 大鼓, 舞蹈 1인으로 구성되고 뒷줄 좌측 1번째 인물은 박판을 연주하고 그 다음 사람은 비파를, 그 다음 사람은 횡적, 4번째 인물은 요고, 5번째 인물은 숙을 연주하고 있다. 무악인들은 모두 흑색의 권각 복두에 홍.록.황색의 단령장포, 홍색속대를 하고, 요고와 대고자는 홍색 격자 무늬의 팔저, 흑화를 신고 있다.<도 3>



<도 3> 宣化 下 8리 壁畫墓, M 1호 장세경묘 벽화 무악인. 하북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54.

악대인원의 수는 묘주의 신분과 관계가 있는데 최다자는 12人 최소는 5人이다. 장국정묘는 장씨 가족묘중 가장 오래된 묘이다. 묘중 산악도는 8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고 1人 장고 1人, 박판 1人, 피리 1人, 횡적 1人, 생 1人, 비파 1人, 무고 1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인들은 모두 여자가 男裝한 것으로 잠화복두를 쓰고, 채색 원령장포, 혁대, 동 흑화를 신고 있다

(2) M 4호 한사훈묘

한사훈은 漢族 부유한 商人 신분으로 건통 10년(1110)에 졸하고, 천경 원년(1111)에 묘장하였다.<sup>47)</sup>

(a) 연악도 : 4호묘인 한사훈의 묘에는 1쪽의 연악도가 있는데 화면 우측에는 1인의 부인이 단정하게 앉아 있다. 부인 앞에는 1개의 탁자가 놓여있고 탁자 앞에서 1인은 춤을 추고 1인은 3현금을 연주하고 있다. 출연인물들의 복식을 보면, 부인은 包髻하고 착수 저고리위에 치마를 둘러입고 록색의 영건을 두르고 있다.



<도 4> 宣化 下 8리 壁畫墓, M 4호 한사훈묘 벽화 하복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93. 94

1인의 3현금 연주인은 글안식 건모, 연각복두(연각복두는 복두를 만든 재료의 천으로 脚을 만들어서 脚부분이 어깨 아래로 느러지는 복두를 말한다)를 쓰고 단령장포, 속대, 흑화를 신고 있다. 1인의 무용인은 권발하고, 양쪽으로 어깨 위까지 길게 땡은 머리를 내려 느리고 있다. 양손을 가슴에 뿜아 치켜들고 춤을 추고 있다. 옷은 단령포에 속대하고 장화를 신었으나 포의 앞자락은 무도에 지장이 없

도록 허리대에 잡아 올려서 끼워주고 있다. 옆의 년장자 1인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 복장은 3현금 연주인과 같이 글안식 건모를 쓰고 단령장포, 속대, 흑화를 신고있다.<도 4>

(b) 산악도 : 한사훈묘의 전실동벽에는 산악도가 그려져있다. 도에는 9인의 무악인이 등장한다. 전각복두에 백색의 대수 단령포를 입고 두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하며 그앞의 무용인은 花脚(복두의 脚을 꽃가지나 꽃과 일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한 脚을 말한다)복두, 착수백색의 단령포, 백색의 바지, 흑대, 흑화를 신고 있다. 그뒤의 7인의 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인의 인물은 요고, 1인의 인물은 생, 1인은 속, 1인은 적, 1인은 박판, 마지막 인물은 大鼓로 구성되고 복식은 무도자는 화각복두, 단령포, 속대, 흑화, 요고 1인은 권각복두, 1인은 下脚복두, 단령포, 속대, 흑화를 신고 1인은 포의 앞자락을 걷어올려 대에 끼워주고 팔에는 팔찌를 하고 있다. 적을 부는 사람과 요고자 1인은 백색원령포, 나머지 사람들은 람색 단령포, 속대, 흑화, 박과 대고를 연주하는 사람은 하각복두, 단령포, 속대, 흑화를 신고있다.<도 5>



<도 5> 宣化 下 8리 壁畫墓, M 4호 한사훈묘, 산악도.  
 하복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92.

(3) M 5호 張世古묘,

M 5호 張世古 벽화묘는 건통 8(1108)년에卒하고 요 천경 7年(1117)에 葬禮 하였다. 묘 동실 전벽. 산악도는 5人으로 구성 되어있다. 좌측 제 1번째 인물은 횡적, 제 2번째 인물은 박판, 제 3번째 인물은 피리, 제 4번째 인물은 大鼓, 제 5번째 인물은 腰鼓를 연주하며 모두 흑색 권각복두(복두의 각 끝부분을 위로 구부러 올린 복두의 각을 말한다)를 쓰고 청색과 록색의 원령장포, 홍색요대, 흑화를

신었다. 황적인은 포의 앞자락을 뒤로 잡아매서 속에 입은 옷이 드러나는데 옥색의 둔부선길이 장저고리에 격자무늬의 바지를 입고 그위에 홍색의 옆트임 무릎길이 증단을 입고 그위에 단령포를 입고 있다. 팔찌를 한 요고인의 속옷을 입은 모습도 같다. 피리부는 사람도 腰鼓人과 같으나 속저고리의 색은 갈색이다. <도 6>



<도 6> 宣化 下 8리 壁畫墓, M 5호 張世古墓벽화, 무악인. 하북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75.

(4) M 6호 張00묘.

M 6호묘는 묘지석을 도굴 당하여 묘주와 년대를 알수없으나 前室 西壁에 8인의 무악인이 그려져 있다. 전열과 후열로 나누어서 2열로 배치되어 있는데, 전열 좌측 1번째 인물은 大鼓를 연주하고 있다. 2번째 인물은 흑색의 우임 직령 착수 저고리 위에 홍색의 無袖배자를 입고 그위 가슴부위에 옥색의 문양이 화려한 장군을 두르고 홍색의 격자무늬의 팔찌를 하고 장화를 신고있다. 腰鼓를 메고 무도자세를 취하고 있고 3번째 인물도 같다. 4번째 인물은 비파를 연주하고 후열 좌측 1번째 인물은 拍板을 연주하고 2번째 인물은 피리를 연주하고 있다.

3번째 인물은 笙을, 4번째 인물은 황적을 연주하고 있다. 전열 앞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여성이 高髻 3각총 束髮하고, 簪花를 꽂고, 옷은 홍색줄무늬 長裙에 허리길이 좌임녹색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네모난 향(?)주머니를 차고, 치마대는 매어 좌측으로 느렸다. 치마는 양옆림 입음새이며, 치마

아래는 문양이 화려한 人口袴의 綠色 바지를 입고, 바지앞에는 홍색의 앞치마를 두르고 바지대는 앞치마 위에 길게 느렸다. 저고리 袖口의 팔목에는 긴한삼을 끼워입고 손동작을 길게 묘사 하고 있다. 나머지 7인은 잠화삼식 복두에 홍.록.청색의 문양이 화려한 직물의 단령포를 입고 속대 후 화를 신었다. 8인 모두 이마 정중 양옆 관자놀이, 입술 양옆에 化粧點을 나타내는 特殊化裝을 하고 있다.<도 7>



<도 7> 宣化 下 8리 壁畫墓, M 6호 張00묘벽화 무악인. 하북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43. 44.

(5) M 7호 張文藻묘

M 7호의 張文藻 묘는 함흥 10년(1074)에卒하고, 요 대안 9년(1093)에 葬禮를 하였다. 전실 서벽에 그려진 7인의 악대는 5인 악기 연주, 1인 舞蹈, 1인은 腰鼓舞를 연출하고 있다. 뒷줄 북측 1번째 인물은 생을 붙고 있고, 2번째 人物은 황적을, 3번째 人物은 피리, 4번째 人物은 박판, 5번째 人物은 大鼓를 연주하고 있다.

앞줄 북측에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舞踊人은 아동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sup>48)</sup> 그 좌측에 腰鼓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 요고인은 우임, 직령교령의 착수 저고리 위에 문식이 화려한 홍색 치마를 둘러서 입고 팔목에는 주황색 격자무늬의 팔찌를 하고 있다. 요고인을 제외한 6인은 모두 잠화삼식 幘頭(꽃가지를 복두에 별도로 꽂은 복두를 말한다), 홍.록.황색의 문양이 화려한 단령袍服을 입고, 홍색, 흑색 帶를 하고 흑화를 신었다. 그중 무용인은 홍색의 문양이 화려한 단령포를 입고 앞자락을 대에 걸어들려 끼우고, 포의 안에는 녹색의



바지, 녹색의 앞치마를 입고 있다. 7인 모두, 두뺨과 입술에 주홍색 칠한 여장 남자이다.<도 8>



<도 8> 宣化 下 8리 壁畫墓, M 7호 張文藻묘벽화 무악인. 하북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25.

(6) M 10호 張匡正묘

M 10호묘는 張匡正의 壁畫墓로 청녕 4년에卒 (1058)하여 대안 9년(1093)에 葬禮를 지냈다.<sup>49)</sup> 장국정묘는 장씨 가족묘중 가장 오래된 묘이다. 묘중 산악도 출연인은 8인으로, 대고, 장고, 박판, 피리, 횡적, 생, 비파, 무고 1인으로 구성되었다. 악인들은 모두 男裝女人들로 대고, 요고, 피리, 횡적, 비파 연주자는 잠화삼식 화각복두를 쓰고, 비파는 권각, 생 1인은 권각복두에 모두 홍,록,황. 갈색에 주황색 화문 채색이 화려한 문직물의 단령장포, 홍색과 흑색의 혁대, 흑화를 신고 있다. 8인의 산악인 구성배



<도 9> 宣化 下 8리 壁畫墓, M 10호 張匡正묘 벽화. 하북성 문물연구소편 (2001), 선화 요묘벽화, 그림번호. 6.

열은 앞, 뒤 2줄로 나뉘져 그려져 있다. 앞줄 요고 악인의 우측 1인은 무도를 하고 있다. 무용인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며, 3각총 고계후 홍색발대, 보주식, 허리길이의 對襟덧옷을 입고, 갈색한삼의 소매는 덧저고리 수구로 길게 늘어져서 손놀림모습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앞 열림의 주름치마 안에는 갈색바지, 홍색 紋織의 앞치마를 입고 리를 신고 있다. 8인 모두, 두뺨과 입술에 주홍색 칠한 남장여자들이다.<도 9>

5) 胡瓌의 卓歌圖소재 舞樂人

고궁박물관 소장 글안인 호희가 그린 '탁월도'에는 글안의 왕이 출행.수렵후 영지로 돌아와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에 글안 장숙을 한 시종 2인은 술을 따르거나 받고 있고, 2인의 정수리를 밀어버리고 양측으로 땅아내린 머리를 한 곤발 侍從은 篋篋를 연주하고 있고, 3인의 글안 裝束을 한 장단 맞추기 대



원 3인은 공후 연주인 뒤에서 1인의 시종 남자가 추는 춤에 손벽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후 2인과 장단부대 3인의 복장양식은 같고 춤추는 사람은 글안식 건모에 연두록색의 착수 좌임장포, 홍색속대, 흑화를 신고 춤을 추고있다.<sup>50)</sup>

<도 10>

<도 10> 胡瓌의 卓歌圖소재 舞樂人.중화문물 5000년 문물집간 집위원회 (민국 75), 중화문물 5000년 문물집간, 복식편 하, p. 249.

IV. 결론

1) 遼代의 벽화묘는 2종류로 하나는 글안 귀족 계층의 陵墓이고, 다른 하나는 漢族관리나 地主의 陵墓이다. 벽화묘의 벽화는 묘실과 묘도의 벽에 그려져 있다. 벽화의 주제는 유목생활, 사계절의 풍

광, 宴飲. 散樂圖와 出行과 歸來圖와 花鳥圖, 星宿圖 등으로 나누어 진다. 陵墓의 벽화 출현 인물들은 글안인 裝束을 하거나 漢人 裝束을 하고있다.

2) 연음 산악도는 擊毬, 狩獵, 宴飲, 散樂을 일상으로 즐기면서 이러한 생활관습을 死後에 墓室의 벽화에 나타낸 것이다. 遼의 技藝戲劇은, 後晉을 멸하고 後晉의 舞樂雜戲를 받아들여 이것이 遼國의 散樂의 기초를 이룬 것이다.

3) 遼에는 4부악이 있었는데, 國樂, 雅樂, 大樂, 散樂이다.

4) 古墳壁畫의 散樂圖는 遼代 樂部의 大曲으로, 散樂器로는 피리, 숙, 적, 생, 비파, 오현, 공후, 쟁, 方响, 장고, 第2鼓, 第3鼓, 腰鼓, 大鼓, 鞀, 박관 등이 등장한다.

5) 樂器 演奏人들의 복식은 簪花삼식, 花脚幘頭를 쓰고 袍服을 입었다. 各개의 산악조에는 1-2인의 무용인이 속해있다. 무용인들은 남자의 경우, 簪花幘頭를 쓰고 袍服을 입고 있으나, 여자 舞踊人의 경우, 글안인 여자 裝束이거나 당시의 東亞細亞 여자 裝束의 특성을 지닌 여자의 복장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편 (1971). 역주 고려사. 권14,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사, 세가 14, 예종 12년 8월.
- 2) 성경린 (1982). 한국전통 무용. 서울 : 일지사, p. 39.
- 3) 김위현 (1985). 遼金史연구. 서울 : 유풍출판사, p. 1.
- 4) 임명미 (1993). 고려왕조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 제도에 관한 연구(2-4). 복식, 20, 한국복식학회, p. 35.
- 5) 임명미 (1996). 한국의 복식문화(1). 서울 : 경춘사, p. 300.
- 6)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1978). 국역고려도경. 서울 :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p. 221.
- 7) 김위현. 앞의 책. p. 182.
- 8) 위의 책. p. 184.
- 9)10)11)12) 위의 책. 동면.
- 13) 동아대학교 고전 연구실편 (1971). 앞의 책. 세가 제 14, 예종 12년 8월.
- 14)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1978). 앞의 책. 권19, p. 123.
- 15) 위의 책. 권12, p. 90.
- 16) 李紅 (1989). 송.요.금 時期的 墓室壁畫. 중국미술전집, 회화편, 12, 묘실벽화, 북경 : 문물출판사, pp.

- 141-175.
- 17) 위의 책. 동면.
- 18) 鄭紹宗 (2000). 宣化 下 8里 遼代 壁畫墓, 河北 古代 墓葬 壁畫. 북경 : 문물출판사, pp. 103-134.
- 19) 왕령령의 (1998). 中國 舞蹈史. 북경 : 문화예술 출판사, p. 53
- 20) 위의 책. 동면.
- 21) 鄭紹宗 (2000). 앞의 책. pp. 103-134.
- 22) 왕극분, 고승길 역 (1991). 중국무용사. 서울 : 교보문고, p. 115.
- 23) 徐華芳 (2001). 宣化 遼墓考古乘語, 宣化 遼墓壁畫. 북경 : 문물출판사, pp. 1-6.
- 24) 鄭紹宗 (2001). 宣化 遼墓壁畫 綜術, 宣化 遼墓壁畫. 북경 : 문물출판사, p. 17.
- 25) 왕령령의 (1998). 앞의 책. p. 54.
- 26) 李紅 (1989). 앞의 책. pp. 141-175.
- 27) 徐華芳 (2001). 앞의 책. p. 4.
- 28) 정소중 (2001). 앞의 책. p. 15.
- 29) 서화방 (2001). 앞의 책. p. 4.
- 30) 鄭紹宗 (2000). 앞의 책. p. 104.
- 31) 李紅 (1989). 앞의 책. p. 155.
- 32) 격한기 문물관리소 (1984). 내몽고 소오달맹 격한기 北 3가 遼墓, 考古, 11, 북경 : 문물출판사, pp. 1003-1011.
- 33) 중국미술전집 편찬위원회 (1989). 중국미술전집, 회화편, 12, 묘실벽화, 도판, 155, 163, 북경 : 문물출판사.
- 34) 위의 책. 도판, 163.
- 35) 정소중 (2001). 앞의 책. p. 17
- 36) 陽池 (2001). 宣化 遼墓壁畫의 若干地域 特色, 宣化 遼墓壁畫. 북경 : 문물출판사, p. 7
- 37) 위의 책. 동면
- 38) 陽池 (2001). 앞의 책. p. 10.
- 39) 정소중 (2001). 앞의 책. p. 14.
- 40) 陽池 (2001). 앞의 책. p. 9.
- 41) 정소중 (2001). 앞의 책. p. 14. 40) 위의 책. p. 15.
- 42) 양지 (2001). 앞의 책. p. 7.
- 43) 정소중 (2001). 앞의 책. p. 14
- 44) 위의 책. p. 14. p. 54.
- 45) 위의 책. p. 15.
- 46) 河北省 文物研究所編 (2001). 선화 요묘벽화. 북경 : 문물출판사, 도판, 123.
- 47) 정소중 (2001). 앞의 책. p. 13
- 48) 中華文物 5000년 文物集刊 편집위원회 (중화 민국 75년). 中華文物 5000년 文物集刊, 服飾編, 대북 : 中華文物 5000년 文物集刊 편집위원회 인행, p. 249. : 왕극분저, 차순자역 (2002). 중국무용사. 서울 : 동남기획, p. 347.